



발행일 2026년 1월 29일(목) | 발행인 박상만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금속노조 “시행령 폐기하고 원청교섭 원년 쟁취” 노조법 통과에도 요지부동 원청 자본… “정부가 교섭장에 원청 끌어 앉혀야”



금속노조가 원청교섭 쟁취와 노조법 2조 시행령 즉각 폐기 결의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2월 5일 열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7일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및 노동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해 창구 단일화 제도를 시행령에 포함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패를 반복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 역시 자본의 교섭 거부 사태를 방기하며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했음에도 원청 자본의 거부로 교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중재 역할 또한 실종된 상태다. 박상만 위원장은 “13개 주요 원청사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일괄적으로 거부 행태를 보였다”며 이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원청 자본에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서라도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행정 분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독소적인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지 않을 시 2월 5일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투쟁 선포식을 기점으로 강력한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 책임은 자본과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이상호 노조 충남지부장은 오는 3월 10일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호 지부장은 “노조법 2·3조는 노동자들이

20여 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낸 절박한 투쟁의 결실이자,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실질’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우고 기업의 회피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이제라도 자본의 방패막이가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하며, 만약 시행령 정치를 통해 노동3권을 계속 제약한다면 이는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거대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규백 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개정 노조법 2조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결실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 등 원청의 책임 회피를 돋

는 독소적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부품물류지회 해고와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방관하는 사이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동시에 침해받고 있는 만큼, 김영훈 장관은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닌 투쟁의 현장을 직시하고 면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부장은 노동부 장관에 즉각적인 면담 응낙과 함께 ▲노조법 2조 폐기 ▲GM부품물류지회 전원 고용승계 ▲직영 서비스센터 재가동을 요구했다.



올리길 이길

주문서 바로가기

가격 1세트 20,000원 / 택배비 3,000원 별도
* 5세트 이상 무료 배송

입금계좌 기업 544-001530-01-023 (이희은)

주문방법 큐알코드로 네이버풀 작성 후 입금해 주세요

문의 010-3878-1277 이희은

주문마감 2026년 2월 11일 (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올리길하이테크지회

투쟁!

**조양한울분회 투쟁 승리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2026 설 재정 사업...**

모심 100% 국내산 한우로만
장시간 우려낸 엄마의 마음 한팩
한우사골곰탕

330g 10팩 25,000원

소중한 사람들과 진한 마음을 나누세요.
설 명절 선물로도 강력 추천합니다.

주문 문의 대구지역지회 사무장 김지후 010 - 3373 - 8260
계좌 안내 카카오뱅크 3333 - 32 - 2516168 [예금주 정영민(조양한울분회장)]

2월 4일(수)까지 주문접수, 2월 5일부터 배송 예정

<대구지역 무료배송 / 타지역 택배비 별도>